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이 책이 읽기 싫어졌다. 아니, 두려웠고 불편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인디언들의 비극적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기 싫어졌다.

이렇게 읽는 내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책은 처음인듯 하다.

책의 마지막장에 이르러 나도 ‘망령의 춤’이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영혼이 깃든 것이 있다면 그것에게 망령의 춤을 부추기는 노래를 불러주고만 싶었다. 그때, 오래전 미국 로키산맥에서 열렸던 ‘한국인 입양아 섬머캠프’(아이적에 입양되어 청,소년으로 성장한 아이들과, 50~60대의 미국 백인부모들이 YMCA와 함께 주최)에 초청연주하러 갔다가 그 지역의 인디언 물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한 작은 피리가 생각났다. 악기를 찾아내어 책에 수록된 인디언의 노래들을 불러보았다.

오늘 그 악기를 통해 인디언들의 영혼을 세미나실로 잠깐이나마 불러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중 ‘성스럽게 나는 사네’ (64p)와 ‘말들이 흥흥 거리며 온다’ (149p) 두 노래를 골라 엮고 내 마음을 번주로 담아 하나의 곡으로 엮어보았다.

오늘 나의 팀 발제는 이 연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인디언은 모두 춤춰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계속 춤춰야 한다.

내년 봄이 오면 위대한 정령이 오시리라.

온갖 짐승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들짐승은 어디서나 가득 뛰놀고 죽은 인디언은 모두 다시 살어나

젊은 사람같이 튼튼해 지리라.

늙은 사람은 젊어지고 눈 먼 사람은 눈을 뜨며 좋은 시절을 맞이 하리라.

위대한 정령이 이 길로 오실 때 인디언은 백인들에게 벗어나 높이 산으로 오르리.

백인은 인디언을 해칠 수 없구나.....이하 생략)⇒위보카. 파이우트족의 메시아

[그러나 땅위에 희망은 없었다.하느님은 우리를 잊은 듯 보였다.] ⇒붉은 구름

### 질문1>

당신이 당시 한 부족의 인디언추장 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죽음)했을까?

### 질문2>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책에서와 유사한 (미군(정부)식) 논리와 방법으로 전개되는 보이지 않는 착취와 억압과 강제는 과연 존재하는가?

### 질문3>

당신에게(우리에게) ‘자연’이란 무엇인가?

‘법’ 과 ‘약속’과 ‘믿음’이란 이들에게 무엇이었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믿고있는가??